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에 흑인 감독... 사상 처음

미국의 흑인 영화감독 스파이크 리(62·사진)가 올해 프랑스 칸 영화제의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이 처음이다.

리 감독은 미국 사회의 흑백인 종차별을 집요하게 다뤄온 감독으로 '폭바로 살아라' (1989), '정글 피버' (1991), '땀샘 X' (1992), '블랙클랜스맨' (2019)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리 감독은 "심사위원장을 부탁 받았을 때 놀랐지만 자랑스럽고 행복했다."면서 "아프리카의 이주민으로서 칸의 첫 심사위원장을 맡아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칸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14일 스파이크 리를 2020년 제73회 칸 영화제의 심사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칸 영화제는 "칸은 영혼을 일깨우고 세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땅이자 세계적인 공명의 장소로, 스파이크 리의 시선은 칸에 매우 소중하며 그의 번뜩이는 재능이 많은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배우 윌 스미스가 2017년에, 역시 미국의 흑인 여성 감독 에바 두버네이가 2018년에 칸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지만, 이 영화제의 심사위원장에 흑인 영화인이 선정된 것은 스파이크 리 감독

리 감독은 백인 우월주의단체 KKK에 가입했던 흑인 형사 론 스톨워스의 실화를 다룬 영화 '블랙클랜스맨'으로 2018년 칸 영화제에서 그랑프리(심사위원대상)를 수상한 바 있다.

방탄소년단 신보 선주문량 342만 장 돌파... 자체 최다 기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새 앨범 국내의 선주문량이 일주일 만에 342만 장을 돌파하며 방탄소년단 앨범 사상 역대 최다 주문을 기록했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 정규 4집 'MAP OF THE SOUL : 7' (MAP OF THE SOUL : 7) 예약 판매가 지난 9일 시작된 뒤

15일까지 선주문량이 342만 장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탄소년단 앨범 유통사 드림어스컴퍼니가 전세계 선주문량을 집계한 결과이다.

이번 앨범은 방탄소년단 앨범 사상 최다 선주문 수량으로 지난해 발매한 'MAP OF THE SOUL : PERSONA' 선주문량 268만 장을 훌쩍 넘어섰다.

'MAP OF THE SOUL : 7'은 해외 예약 판매를 진행하는 미국 아마존에서도 판매 첫날부터 'CD 앤 바이닐' (CDs & Vinyl) 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이후 16일 현재까지 8일째 1위를 이어갔다.

방탄소년단은 2월 정규 4집 'MAP OF THE SOUL : 7'은 다음 달 21일 발매된다. 발매에 앞서 1월 17일에는 선공개 곡과 아트 필름을 함께 선보였다.

휘트니 휴스턴, 로큰롤 명예의 전당 입성

지난 2012년 사망한 휘트니 휴스턴이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16일 CNN은 1천여 명의 아티스트로 구성된 로큰롤 명예의 전당 회원 선정위원회가 2020년 입회자로 휴스턴과 두비 브러더스, 데페세 모드, 나인 인치 네일스, 더 노토리어스 B.I.G, T-렉스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로큰롤 명예의 전당은 첫 상업음반을 발매한 지 25년이 지난 가수를 대상으로 입회자를 정한다. 아티스트가 미친 음악적 성과와 영향을 광범위하게 평가하는 만큼 유명 아티스트들도 쉽사리 이름을 올리지 못할 정도지만 휴스턴은 단번에 성공했다.

휴스턴의 입회는 그가 남긴 음악적 유산이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19세에 음반사와 계약하고 가수 활동을 시작한 휘트니 휴스턴은 전 세계적으로 2억 장 넘는 음반을 판매했다. 빌보드 차트에서 7곡 연속 싱글차트 1위를 기록한 유일한 여성 아티스트이며, 그래미상을 6차례나 수상하는 등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여성 가수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

휴스턴은 바비 브라운과의 결혼 이후 불행한 삶을 살았고 2012년 2월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의 자택 욕조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채 발견됐다. 2020년 로큰롤 명예의 전당 입회 행사는 오는 5월 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다.

1299호 숫자퍼즐 정답

5	3	8	4	2	1	7	6	9
6	4	9	7	5	3	2	8	1
1	7	2	6	8	9	3	4	5
7	2	5	1	3	8	4	9	6
3	9	4	2	6	5	8	1	7
8	6	1	9	7	4	5	2	3
9	5	6	8	4	7	1	3	2
4	1	7	3	9	2	6	5	8
2	8	3	5	1	6	9	7	4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운세 상담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로 바뀌는 시점이 되면 누구든지 새해의 운수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누구든지 해가 바뀌는 시점에 이르러 되면 신년 운수가 궁금한 것이 당연하다. 신년 운수를 알아보기 위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방법으로 흔히 토정비결(土亭秘訣)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토정비결은 주로 일반 서민들에게 삶의 애환을 달래주고 한 해 운수를 알고 싶어 하는 욕구를 보다 손쉽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점서(占書)이다. 그 내용의 대부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고 다가오는 새해에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와 같은 전문 역학인(曆學人)이 보는 관점에서 토정비결은 하나의 재미로서

볼 수는 있으나 입체적인 관점에서 각자 개인에게 꼭 필요한 운명적인 조언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본다. 필자와 같은 전문 역학(易學) 학술인을 통해서 한해의 운수를 알아본다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가지고 진단하게 되는데 한 사람의 운명을 진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시각에 뿌려진 하늘의 천기(天氣)와 땅의 지기(地氣)의 역학적인 관계를 분석하고 보다 정교하게 한 사람의 인생에 드리워진 운명적인 특징을 알아볼 수 있으며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관점에서 인생 전반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보다 잘 할 수 있는 다양한 특기를 지니고 있으므로 자신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어떤 분야에서 언제

활동할 때 보다 손쉽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 어떤 운세가 다가오게 되는지 알 수 있고 그 운세에 맞추어서 자신이 어떤 처세와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더불어서 신년운세로서 재물운, 직장운, 사업운, 배우자운, 자식운, 건강 등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마치 일기예보처럼 한 해 동안의 기상과 날씨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 내일의 날씨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되는대로 살아가는 사람과는 운명적인 효율성에서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 2020년 새해운세 상담합니다 ★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